

2015년 지방직 9급 국어 해설(A형)

1. 정답 : ④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르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의미하는 성어이다. 나머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라는 뜻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2. 정답 : ②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 ③ 동성이속(同聖異俗) :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정답 : ①

- ㉠ 分類(분류) : 종류에 따라서 가름.
- ㉡ 分離(분리) :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 區分(구분)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4. 정답 : ③

곰살긋다 (형용사)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예) 곰살긋게 굴다.
2. 꼼꼼하고 자세하다.
예) 사내대장부가 집안일에 너무 곰살긋어도 못쓰는 법이다.
나는 곰살긋게 이모의 허리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

5. 정답 :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자성어로는 동족방뇨(凍足放尿), 하석상대(下石上臺) 등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1. 당장에 쓸데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뒤에는 아쉽게 생각된다.

2.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꽤 어렵다.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아무리 힘이나 밑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

6. 정답 : ④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형태 여럿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함께 쓰일 때에는, 그 중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부쉬지다’는 버리고 ‘부서지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보아서 ‘부서지다’만을 단수 표준어로 처리한 예이다.

오답 해설 :

① 시답다 :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

시답잡다(시답지 않다) :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② -배기 :

1.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3.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③ 금세 : ‘금시에’의 줄임말, ‘지금 바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금새 : 물건의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

7. 정답 : ②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예를 들어,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등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에는 ‘소괄호(())’를 쓴다.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를 쓴다.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는 ‘중괄호({ })’를 쓴다.

8. 정답 : ①

<보기>의 둘째 문장에 ‘몽타주는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고 했다. 즉, 상형문자가 자체의 형성 원리가 몽타주가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는 셋째 문장에서, ③과 ④는 넷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정답 : ③

첫째 문단에서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두 시장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중심소재인 노동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10. 정답 : ④

앞부분에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장이 감독조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3공사장으로 보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복구할 생각은 아니다.

11. 정답 : ①

‘허구하다’가 기본형이므로 ‘허구한’으로 쓴다.

‘허구하다’는 형용사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별이다 :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3.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4. 가게를 차리다.
5.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③ 서슴지 : ‘서슴다’의 활용형이다. ‘서슴하다’가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서슴치’(서슴하+지)가 틀린 말이다. 기본형 ‘서슴다’에 어미인 ‘-지’가 붙어 ‘서슴지’가 된 것이다.

④ 서투른 : 복수 표준어 ‘서투르다/서툴다’의 어간에 어미 ‘-ㄴ’과 ‘-니’가 붙으면, ‘서투르다’는 ‘서투른/서투르니’로, ‘서툴다’는 ‘르’ 이 탈락하여 ‘서툰/서투니’로 활용한다.

12. 정답 : ①

동사는 일반적으로, 현재형어미 ‘-는’과 명령형(-라), 청유형(-자), 진행형(-고 있다)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제약이 따른다. ‘굳다’에 현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오답 해설 :

- ② ‘다른’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형용사이다.
- ③ ‘새로운’은 ‘새롭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 ④ ‘아픈’은 ‘아프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13. 정답 : ③

③은 고치기 전과 후가 모두 수식의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의 마음씨 좋은 손자가 그이다.’ 혹은 ‘그의 할머니는 마음씨가 좋으시다’ 또는 ‘그는 할머니의 마음씨가 좋은 손자이다’,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등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오답해설 :

- 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 ‘창작 활동’은 ‘열었다’를 서술어로 가질 수 없다.
- ② 이중 피동 : 피동접사인 ‘-리’에 통사적 피동사인 ‘-어지다’로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 ④ 무정명사(식물포함)에는 ‘에’를 유정명사에는 ‘에게’를 사용한다.

14. 정답 :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수식해야 하므로 ‘에너지를’이 아니라 ‘에너지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뒷부분에 목적이인 ‘이용을’이 나오므로 목적어 중복이다.

오답 해설 :

- ① ‘사업자는 ~ 동의한다’의 형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올바르다.
- ③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조사는 ‘-(으)로써’이다. ‘-(으)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
- ④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인 ‘과’가 알맞다.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15. 정답 : ②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는 높임법의 사용이 적절하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높이는 상황이므로 ‘과장님께서서’이라고 극존칭을 쓰지 않는다.

오답 해설 :

- ① ‘귀하’라는 특정인과 ‘많이 참석해’의 의미가 맞지 않는다.
- ③ 상품은 사람이 아니므로 ‘-시’를 넣지 않는다. ‘품절입니다.’로 고친다.
- ④ 나라, 민족 등은 낳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나라’는 ‘우리나라’로 고쳐야 한다.

16. 정답 : ③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글은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③은 ‘종을 친다’라는 시각적 경험을 강조한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는 모두 경험에서 얻어지는 감각이 아닌 사고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답이 아니다.

17. 정답 : ④

아내는 무능한 남편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외경하는 마음이 없다. ‘외경(畏敬)’은 ‘경외(敬畏)’와 같은 말이며,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에서 양반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알 수 있다.

③ 관찰사가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한 부분에서 공평 무사한 일을 처리함을 알 수 있다.

18. 정답 : ④

서술 대상과 사건은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 하나이다. 그래서 장면을 나열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심청이 거동 보소”,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②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라는 발화와 심청이가 기도하는 발화에서 심청이가 아비를 위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의 전황을 알 수 있다.

③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에서 알 수 있다.

19. 정답 : ③

제시문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송이(채봉)가 달빛을 보며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이다. ③은 유

리왕의 ‘황조가’로서 아내 ‘치희’와 이별하고 홀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것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오답 해설 :

- ① ‘공무도하가’는 임과의 사별(死別)을 슬퍼하는 노래이다. 제시문은 사별이 아니다.
- ② ‘빈녀음’은 허난설헌의 한시로 추위를 견디며 시집갈 사람들의 옷을 계속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시집을 가지 못함에 대한 한탄을 그려내고 있다.
- ④ 정지상의 ‘송인’은 친구와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20. 정답 : ③

이 글은 21세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글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에, 인간의 삶에 심층적 변화를 초래했다.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문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택할 것이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또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중앙 집권적 권력에 의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기술사회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라)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 구성된 유기적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